

# 노사 합의→국비 확보→현대차 투자 ‘가속 페달’

## 노동계 참여로 다시 활기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광주시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광주형 일자리’ 원탁회의가 정상 가동되면서 현대차 합작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의 노사민정 불참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완성차 공장 설립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초당적 지원 약속에 이어 노동계의 적극 참여로 활기를 띠게 됐다.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진입도로 개설 등 관련 예산 내년 국비 확보 ▲미온적인 현대차의 투자 유치 ▲광주시의 현대차와의 협상 정상화 등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며,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첫 원탁회의를 통해 ‘투자협약서 수정 및 투자유치추진단 구성’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특수목적법인(SPC)인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서 민주당이 약속했던 광주형 일자리 지원책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행복·공공임대주택 1000여 채와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체육시설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광주 완성차 공장 예정 부지인 빛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도 약속했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10일경 마무리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 국비에 빛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의 광주형 일자리 예산이 확보되면 현대차 합작 완성차 광주공장 설립 작업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입도로 개설·주거·보육 등

민주당 초당적 지원 약속 ‘탄력’

내년 예산 심의 전 합의해야

市 투자유치 프로세스 재가동

국비 지원은 또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지만 정부와 지자체, 회사 등이 복지혜택을 늘려주는 게 핵심인 광주형 일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동안 임금 문제 등으로 노사민정에 불참했던 노동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의 큰 축인 복지 분야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24일 광주를 찾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노동계의 상생을 강조했다. 내년 예산 심의 전까지 광주시와 노동계가 완전 합의에 도달해 일을 진행해야 관련 예산도 내년 국비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내) 여러 군데 노사 갈등이 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자주 봤는데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면 복지 일자리와 함께하는 좋은 공동체 만들 수 있다”면서 “사회 통합형 일자를 만들고 이게 선례가 돼 군산, 창원, 거제, 울산 등 어려운 겪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맞춤형 일자를 만드는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같은 취지의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에 맞춰 광주 빛그린산업단에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진입도로 개설 관련 내년 국비 확보는 중요하다.

광주시와 노동계의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대자동차의 투자 움직임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차 합작 완성차 광주공장 관련 논의는 광주시와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대차는 한 발짝 물러서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노동계가 투자협약서를 수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면 이어 내년 국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 현대차의 투자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노동계의 참여로 투자유치추진단 등을 구성한 광주시의 투자 작업도 활발해졌다. 광주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형 일자의 한 축인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그동안 광주시가 현대차와 정부를 상대로 완성차 공장 설립 작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면서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동안 미뤄졌던 투자유치 프로세스도 재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28일 “광주지역 노동계는 국내 자동차산업 노동자를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 재추진 참여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자동차 판매 감소 추세, 통상 마찰, 한국 자동차산업 위기 속에 광주형 일자리 추진은 국내 자동차산업 파국을 불러오며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 일자리 1만2천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14만 대 규모에 불과한 한국 경차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광주형 일자리로 경차를 연간 10만 대 추가 생산하면 한국 자동차공장 모두가 위기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단과 함께 청와대 뒤 북악산을 산행하던 중 정상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오면 한라산 구경 시켜줄 수 있다”

靑 기자단과 북악산 등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및 참모들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올라 산 정상에서 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무엇을 보여줄 것냐’는 질문에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계획

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찾아 천지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 민족 화합의 상징이라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한라산을 방문하는 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라산 정상에서 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무엇을 보여줄 것냐”는 질문에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계획

이 된다”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모르니 일정이 잡히면 맞춰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행에서, “올해 남은 두 달을, 국정 초점을 어디에 두고 정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딱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가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한편으로는 북한, 한편으로는 미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 결정 ‘카운트다운’

공론화 시민참여단 250명 선정

찬반 비율·연령·성별 감안 구성

끝장 토론 거쳐 내달 9~10일 결론

지난 16년간 찬반 논쟁을 거듭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250명 선정작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8일 “지난 11~23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표본조사를 마치고, 찬반 비율을 토대로 연령별, 성별 등을 감안해 250명의 시민참

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29일 250명에 대해 선정 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오는 11월 8일까지 시민참여단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속의하는데 필요한 자료집 발송, 방송토론 및 온라인 영상 안내 등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6일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된 공론화위는 찬반 양측의 의견과 설명 등을 담은 자료집에 대한 검증위원회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검증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명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교통분야

를 비롯해 도시계획, 법률, 재정분야로 나눠 5명으로 구성한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250명이 단기간에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논쟁의 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검증된 자료를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50명의 시민참가단은 11월 9~10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1박2일간의 종합토론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의 민주주의와 문화 많이 배우고 싶다”

슈뢰더 前 독일총리 광주 방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광주 발전을 위해 독일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10월 초 한국인 김소연씨와 결혼한 슈뢰더 전 총리는 26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며 “5·18묘지를 둘러보면서 꽃다운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의 사위가 됐으니 한국에 살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배우고 싶다”며 “문화,

경제, 행정 등 독일의 역사와 나의 경험이 광주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의 부인 김씨는 광주 대성여고, 전남대 독어교육학과 출신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밸리 조성 등 광주가 미래 동력을 마련하는데 독일의 선진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독일의 여러 도시들과 우호·자매결연을 맺고, 독일 기업의 광주투자유치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과거 재임기간 ‘아젠더2010’과 ‘하르트스게혁’으로 독일 경제를 부활시키고, 노동개혁을 성공시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슈뢰더 전 총리는 “선진국일수록 개혁하기가 힘들다. 국민 대다수가 개혁의 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5·18 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성을 동의하면서도, 그 개혁이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거부감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확고한 철학과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국제경영교육 재인증 획득

## 더 큰 세상을 향한 열정과 꿈, 전남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이 함께 합니다!

### 경영대학

- 전 세계 106개교에 걸친 Exchange Student Program
- 해외 우수대학과의 Double Degree Program
- 글로벌 현장 감각을 위한 Business Field Program

-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가 부여하는 국제경영교육인증  
- 미국 주요 대학 학장들이 설립(1916년)한 비영리 인증기관,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표(교수진 역량, 우수학생 유치, 우수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인증  
- AACSB 2012년 최초 인증, 2018년 재인증 획득

### 경영전문대학원

- 국제화 프로그램  
Global MBA의 100% 영어 강의
- 전문 트랙별 MBA 교육 프로그램  
실무핵심 전문 경영 인력 양성을 위한 재우회계, 빅데이터, 기술경영 트랙 운영
- Capstone Project를 통한 문제해결중심교육  
기업의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 환경에 맞는 현장 문제 해결 중심 교육 제공